

朝鮮時代の皮物에 관한 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朴 舜 智

前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學科

教授 李 春 桂

目 次

I. 緒 論
II. 家 畜
III. 野生動物
IV. 工 匠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 緒 論

朝鮮時代に皮物は家畜의 사육 및 集團으로된 家畜의 복축 그리고 狩獵을 통하여 각종의 皮物을 얻었고 이를 통해 갓옷과 防寒用의 衣服에 그리고 각종 신발에 사용하였으며 이불과 요와 같은 生活用品에도 사용하였다.

威鏡道의 慶源를 통해 朝鮮時代に 皮物의 國際的 貿易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

이에 본 연구는 朝鮮時代に 사용된 皮物에 관하여 각종 文獻과 유물을 통하여 그 종류와 용도에 대하여 실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朝鮮時代 皮物이 사용된 예는 服飾에 사용된 것으로 防寒用의 갓옷과 갓저고리 같은 저고리 종류와 갓두루마기와 같은 袍 종류가 있으며 갓종 가죽신과 溫帽 등을 들 수 있다.

朝鮮時代 皮物은 家畜과 野生動物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데 家畜은 朝鮮時代 사육되었던 각종 家畜의 명칭에 따라 分類하여 그 皮物의 種類 및 用途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野生動物에서는 狩獵에 의해 그 皮物을 얻었던 동물의 種類 및 그 皮物의 用途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工匠에서는 위의 皮物의 加工 및 製造를 맡았던 工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皮物에 관한 선행연구로 柳喜卿은 『한국복식사 연구』²⁾에서 韓國의 上代社會의 服飾에서부터 개화기의 服飾에 이르기까지 服飾史에 포함된 皮物에 관하여 부분적인 고찰을 하였다. 閔吉子는 “朝鮮時代の 皮, 毛物에 대한 研究”³⁾에서 朝鮮時代に 사용된 皮物에 관한 내용을 문헌별로 발췌·정리하였다. 金文淑은 『毛皮(I)』⁴⁾에서 東西洋의 毛皮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現代 毛皮服飾의 패션변화와 방향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고 있다. 韓國의 皮物은 東洋의 毛皮服飾의 한 부분으로서 조사되

1) W.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探求堂, 1978, p.76.

2)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3) 閔吉子, “朝鮮時代 皮, 毛物에 대한 研究”, 『教育論叢』 第11輯, 國民大學校 教育研究所, 1991.

4) 金文淑, 『毛皮(I)』, 新羅出版社, 1987.

었다. 鄭福南은 “裘에 關한 研究”⁵⁾에서 韓國과 中國 服飾에 있어서 毛皮服인 갓옷의 材料와 服飾制度에 關하여 연구하였다.

로 사냥할 때 많이 신었다 한다.

II. 家 畜

朝鮮時代에 많은 家畜이 사육 되었는데 농경과 運送手段으로 그리고 食物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 사육을 통해 가죽과 털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각종 服飾 및 生活用品으로 사용되어졌다. 또한 가죽이나 이에서 나는 털을 목적으로 사육된 노루나 羊과 같은 동물도 있었다.

朝鮮時代 家畜은 민가에서와 牧場을 통해 사육 되었는데 牧場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바다물을 울타리로 사용한 섬 목축이 많았으며 濟州에서 가장 많은 목축이 이루어졌다. 목축되는 家畜 종류로는 양·말·소·염소·돼지·노루 등이 있었다.

1. 소(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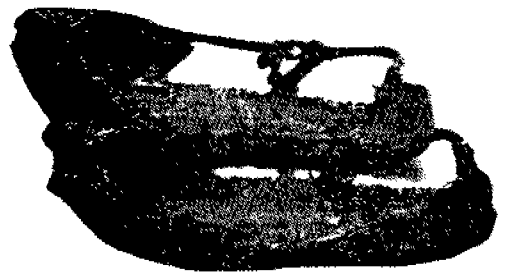
소는 農耕社會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家畜으로 朝鮮時代 어디에나 존재한 家畜이었다. 1407년에 요동에 1萬匹을 賣買한 기록이 있어 많은 사육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⁶⁾ 소가죽은 가장 흔한 가죽으로 庶民들이 주로 사용한 가죽품목이었다.

소가죽의 종류로는 牛皮·各色牛皮·倭牛皮·熟牛皮·牛皮·中牛皮·生牛皮가 朝鮮時代 기록에 나타나며 물소가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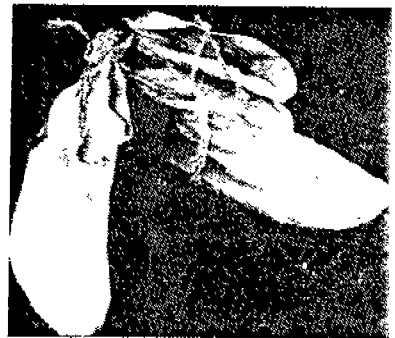
그 유물로 濟州民俗博物館에 소장된 소 한마리 분으로 만든 소가죽 옷이 있다(圖 1). 소가죽으로 된 가죽미투리가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圖 2) 濟州道에는 가죽버선 遺物이 전하는데 濟州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圖 3). 가죽버선이란 쇠가죽을 材料로하여 만든 일종의 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죽버선은 겨울철 화전민들이 주



〈圖 1〉 쇠가죽옷
(濟州民俗의 멋1 p.15)



〈圖 2〉 소가죽미투리
(國立民俗博物館 所藏品)



〈圖 3〉 가죽버선
(유물마다 되살아나는 노래 p.73)

5) 鄭福南, “裘에 대한 研究-우리나라와 中國을 中心으로-”, 博士學位請求論文, 世宗大學校, 1992.
6) 『太宗實錄』卷7, 4年 2月 戊子.

2. 말(馬)

말가죽을 마룩비(馬鹿皮)라고 하며⁷⁾ 절다(截多)·구랑(勾郎)·부루(夫妻)·가라(加羅)·공골(公鵝)·고라(高羅)·해류(海鵠)·가리온(加里溫)·선금(線臉)·간자(問者) 등의 滿洲語에 기인한 다양한 명칭⁸⁾이 있어 말의 종류가 多樣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滿洲에서 말을 賣買하였다.

망아지가죽으로된 갓옷과 이불 그리고 요가 朝鮮時代에 사용되었다.⁹⁾

朝鮮時代에도 말을 1萬匹씩 中國에 수출한 일이 있을 정도로 朝鮮에 말이 많이 사육되었다.¹⁰⁾

朝鮮時代 말가죽 종류에는 馬皮·白馬皮·紅馬皮·黑馬皮가 있었다.

말의 牧場은 濟州와 慶尙道の 石浦·全羅道の 嶺島와 莞島에 그리고 平安道の 鐵山에 있었다.¹¹⁾

말총이라 불리우는 말꼬리털이 사용된 遺物로 갓과 말총토시 등이 있다.

백마 가죽은 宮中の 産室排設用으로 사용되었다.¹²⁾

3. 당나귀(驢)

朝鮮時代 유생들이 많이 뒀던 동물로¹³⁾ 朝鮮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家畜의 종류로¹⁴⁾ 그 가죽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4. 돼지(豕·猪)

돼지는 古代로부터 사육된 家畜이었다. 그 가죽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나 그 털로 만든 氈帽가 다수 있는 점에 미루어 그 가죽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朝鮮에는 야생종 멧돼지가 있었으며¹⁵⁾ 돼지가죽(猪皮)은 甲冑의 主原料였다. 生猪皮 즉 생돼지가죽으로 미늘을 만들고 그늘린 鹿皮를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을 皮甲이라 했다.¹⁶⁾

돼지는 특히 濟州에서 목축되었으며¹⁷⁾ 朝鮮時代에 사용된 돼지가죽의 종류로는 猪皮·山猪皮·生猪皮가 있다.

5. 염소(羔)

羔는 새끼양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靛鞣 즉 山羊 즉 검은양으로 모칭하며 고령의 방언은 염소를 말는 것으로¹⁸⁾ 고령·산양·검은양·염소가 같은 종류이다. 염소의 牧場은 濟州와 慶尙道の 甘勿島에 있었으며 朝鮮에서는 염소를 牧場에서 放牧하여 길렀음을 보여준다.¹⁹⁾ 朝鮮時代에는 집에는 항상 이 山羊의 가죽이 많이 있었다.²⁰⁾ 양털의 세탁은 돼지발굽을 삶아 뜨거운 물로 씻으면 때가 말끔히 지고 崩沙(崩沙)를 다린 물로 씻으면 짐이 일지 않으며 좋은 연주를 양털 위에다 뺐어 맵쌀

7) 『雅言覺非』卷1.

8) 『京都雜志』卷1, 風俗, 馬驢.

9) 『五洲衍文長箋散稿』卷22, 獸皮禽毛辨證說.

10) 『太宗實錄』卷18, 9年 7月 丁亥.

11) 『大東地志』卷7·12·20.

12) 梁在淵 外 3人, 『韓國風俗誌』, 乙酉文化社, 1988, p.194.

13) 『京都雜志』卷1, 風俗, 馬驢.

14)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169.

15) 上揭書, pp.168·469.

16) 『韓國의 甲冑』,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p.95.

17) 『大東地志』卷12.

18) 『雅言覺非』卷1.

19) 『大東地志』卷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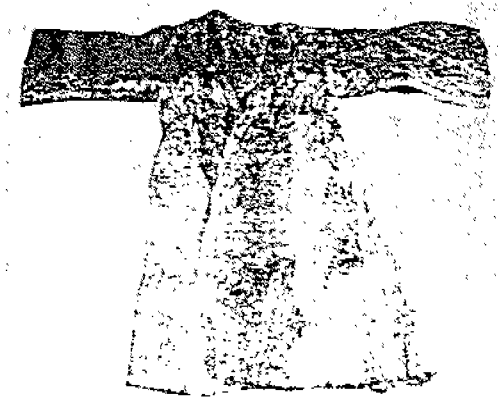
20) 『韓國誌』, p.465.

가루로 닦아내는 것이다.²¹⁾

6. 개(犬·狗)

개가죽은 平安道에서 산출되었다. 그 종류로 狗皮·毛狗皮·白狗皮가 있었다. 狗皮 즉 개가죽을 狗鹿皮라 말하였고²²⁾ 朝鮮에서 호랑이가죽·여우가죽·개가죽으로 된 이불과 요가 있었다.²³⁾ 朝鮮時代に 京畿道 水原과 平安道 三和에서 개가죽방석(狗皮方席)의 산출이 있었다.²⁴⁾

개가죽으로 만든 遺物로 濟州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었던 개가죽 두루마기 <圖4>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죽옷에는 개 여섯마리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찌미 먹어 망가져 버렸다 한다. 개가죽 옷은 咸鏡道에서도 衣服에 사용되었다.²⁵⁾



<圖 4> 개가죽옷
(濟州民俗博物館 所藏品)

21) 『五洲衍文長箋散稿』卷22, 獸皮禽毛辨證說.
22) 『雅言覺非』卷1.
23) W. E. 그리피스, 上揭書, p.155.
24) 『邑誌』卷10, 韓國學文獻研究所, 亞細亞文化社, 1982, p.949.
25) 洪良浩, 『耳溪集』.
「赤狗皮身掛 生牛皮足穿皮衣冬夏皆宜 革襪水陸俱便」
26) 『大東地志』卷3·12.
27) 『增補文獻備考』卷125.
28) 『增補文獻備考』卷152, 田賦考 12.
29) 『增補文獻備考』卷2, 兵考 6, 顯宗 11年.
30) 『韓國誌』, p.166.

7. 羊

羊은 濟州와 京畿道の 未島에서 목축되었다.²⁶⁾

羊은 遊牧生活을 하는 민족에게는 항상 사육되는 동물인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遊牧地帶에 포함 또는 근접해 있었으며 이에 많은 羊이 사육되기도 하였고 또한 주변의 遊牧國家로부터 高麗時代에는 數千씩 들여오기도 한 家畜이었다. 朝鮮時代에도 넓은 牧場에 放牧되었고 민가에서도 사육되었다.²⁷⁾

1638년의 대동법에 의한 羊에 대한 公納이 늘 있었다.²⁸⁾ 典生署에서는 每年 上貢이 있었다.

朝鮮時代 庶人에게 兒羊皮 옷은 금지된 品目²⁹⁾이었으나 이를 통해 羊가죽이 당시 많은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野生動物

朝鮮의 都市에 있는 商店들이 한반도의 숲과 산에 사는 온갖 종류의 짐승의 털과 가죽 채워져 있었으며³⁰⁾ 우리나라는 각종 皮物의 보고였다. 이러한 皮物은 古代부터 狩獵民族의 傳統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服飾 및 生活用品에 必要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防寒에 많이 이용되었다.

1. 사슴(鹿)

사슴은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動物로 朝鮮時代에도 그 가죽이 服飾 및 여러 生活用品에 多樣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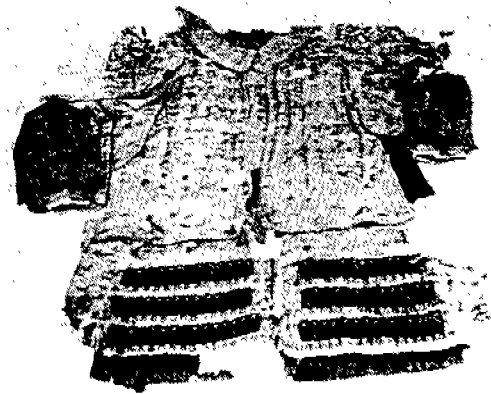
게 製作되어 사용되었다. 사슴가죽을 鹿皮라 하여 보통 늑비라 불리워졌다.³¹⁾

사슴가죽은 전국적으로 산출되었고 종류로는 鹿皮·大鹿皮·中鹿皮·小鹿皮·紫的鹿皮·回粧紫的鹿皮·草綠鹿皮·黑鹿皮·煙鹿皮·衫兒鹿皮·熟鹿皮·歲幣鹿皮·方物鹿皮가 있어 그 종류가 매우 多樣하였다.

사슴가죽이 사용된 遺物로는 1576~1627에 생존한 南以興 장군의 遺品인 鹿皮裘와 바지(圖 5)가 있으며 그 외에 많은 신과 갑옷(圖 6)에도 鹿皮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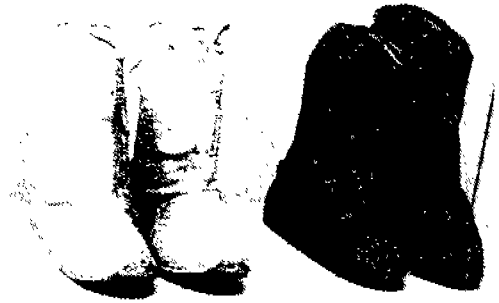


〈圖 5〉 鹿皮裘
(文化財大觀 pp.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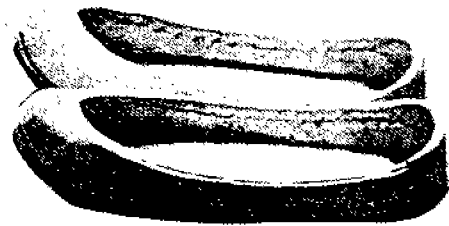
〈圖 6〉 鹿皮갑옷
(韓國의 甲冑 NO.25)

〈圖 7〉은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黑靴와 白靴인데 그 材料가 사슴가죽 즉 鹿皮이다. 黑靴는 朝鮮時代 王 이하 文武官吏들이 官服을 입을 때 신던 목이 긴 마른 신으로 王 이하 貴族이 사용하던 신들이 사슴가죽을 많이 사용했음이 遺物로도 입증된다.



〈圖 7〉 黑靴와 白靴
(國立民俗博物館 所藏品)

〈圖 8〉은 鹿皮鞋로 흰색사슴가죽으로 만들어졌다.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 上流階級이 사용하던 마른신에 사용된 가죽은 대부분 鹿皮였다.



〈圖 8〉 鹿皮鞋
(國立民俗博物館 所藏品)

2. 노루(獐·麂)

노루가죽은 문헌 기록에 의하면 獐皮와 대노루

31) 「雅言覺非」卷1.

가죽(麋子皮)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루가죽은 사슴가죽과 마찬가지로 宮中에서 많이 사용된 皮物 중의 하나인데 年次的으로 節氣에 따라 大殿을 비롯한 각 宮에 進上된 品目이다.

노루가죽은 신과 옷을 만드는데 쓰여졌으며³²⁾ 100년전까지만 해도 濟州道에서는 노루사냥이 행하여졌다 한다.³³⁾

노루가죽에서 獐皮는 忠淸道·慶尙道·黃海道·江原道·平安道·咸鏡道에서 산출되었고 대노루가죽은 江原道에서 생산되었으며 熟獐皮는 全羅道에서 생산되었다. 全羅道는 특별히 熟鹿皮와 熟獐皮를 朝鮮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였다.³⁴⁾

朝鮮에서 생산되는 노루가죽의 종류로는 獐皮·薄獐皮·結弓獐皮·紫의獐皮·紅獐皮·麋子獐皮·熟獐皮가 있었으며 麋子皮·黑麋子皮가 있었다.

사슴가죽과 마찬가지로 노루가죽도 또한 靴와 같은 신에 많이 사용된 가죽의 종류이다.

3. 곰(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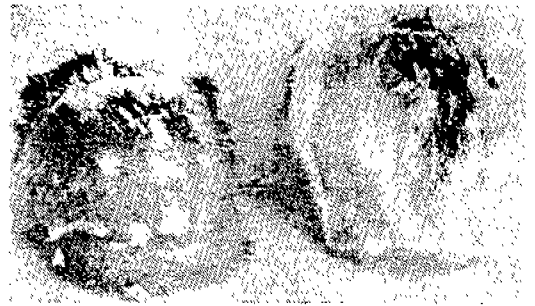
朝鮮時代に 곰은 값진 동물로 전 부위가 사용되었다.³⁵⁾ 곰가죽은 忠淸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江原道·平安道·咸鏡道の 産物로 기록되어 한반도 全般에서 산출되었고 곰가죽의 종류로는 熊皮·黑熊皮·各色熊皮·熊毛皮가 있었다.³⁶⁾

곰가죽은 주로 검은색의 鞞鞋·溫鞋로 만들어져 많이 着用되었는데 宮中을 비롯한 上流社會에서 많이 着用되었다. 고급가죽이었다.

4. 오소리(獾)

오소리(獾)를 세속에서는 土猪라고 했으며 그 털은 습기를 가장 잘 없애는 것이었다.³⁷⁾

濟州道에는 오소리 가죽으로된 가죽감태(가죽감투)가 있는데 가죽옷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生活遺物이다. 濟州道の 경우는 약 100년 전 까지도 生活에 많이 쓰였던 것이다. 오소리가죽은 최상의 감태재료였다.³⁸⁾ <圖 9>는 오소리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감태로 濟州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圖 9> 오소리가죽감태
(濟州民俗의 멋1 p.10)

5. 담비(貂)

獬을 貂字의 뜻으로 대신하고 있어 皮가죽은 담비가죽임을 보여준다.³⁹⁾ 즉 獬皮와 貂皮는 모두 담비가죽을 의미하는 것이다. 담비가죽은 韓國에서 古來로부터 上品의 가죽으로 취급되었는데 朝鮮時代 1品에서 3品에 이르는 堂上官의 耳掩에 사용된 고급 모피였다.⁴⁰⁾

32) 『韓國誌』, p.168.

33) 진성기, 『濟州民俗의 멋1』, 悅和堂, 1979, pp.9~10.

34) 『世宗實錄地理志』 卷148~155.

35) 『韓國誌』, p.166.

36) 『世宗實錄地理志』 卷149-155.

37) 『世宗實錄地理志』 卷149-155.

38) 진성기, 上揭書, pp.9-10.

39) 『雅言覺非』 卷1.

40) 『經國大典』 卷3, 禮典 儀章.

검은 담비의 毛皮는 朝鮮 자체내의 需要에 충당 되었으며 짧고 장미빛과 황색으로 덮여져 있는 목 부근의 작은 부분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41) 朝鮮의 담비가죽의 질이 우수하였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皮物類로 담비가죽은 外國貿易에 있어서도 高價였다.

朝鮮時代 貂皮가 갓옷에 사용되었으며 60마리나 되는 담비가 갓옷 한벌 만드는데 들어갔는데 越冬品目으로 갓옷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 品質이 우수하였다.⁴²⁾

新行 때에는 담비가죽으로 만든 참의모양의 모자를 쓴다는 기록⁴³⁾이 있어 담비가죽이 朝鮮에서 庶民層에 까지 婚禮와 같이 중요한 때에 사용되는 皮物의 종류임을 보여준다.

朝鮮의 각종 문헌에 따른 담비가죽의 종류는 貂皮 · 北道土貂皮 · 進獻鄉貂皮 · 禮單貂皮 · 胡貂皮가 있다. 담비는 古朝鮮 때로부터 中國에 金과 같은 重量으로 貿易한 일이 있는 皮物로 朝鮮時代에 이르기 까지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주로 갓옷과 같은 고급 防寒服으로 사용되었다. 朝鮮時代에 貂皮로 만든 笠과 이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暎에 進上된 品目이었다.⁴⁴⁾

6. 수달(水獺)

水獺은 우리나라에 흔한 野生動物이었다.⁴⁵⁾

水獺의 명칭을 水獺皮라 한다. 그 가죽을 쓰는 까닭으로 전신을 모칭하여 그 이름이 만들어져⁴⁶⁾ 水獺의 가죽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高麗時代에 元나라에서 選好되었던 水獺皮가 朝鮮時代에도 많이 포획되고 그 가죽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水獺의 가죽으로는 갓옷과 車 및 수레의 緣에 두르거나 裝飾을 한 기록이 있다.⁴⁷⁾

水獺가죽의 종류에는 水獺皮 · 進獻水獺皮 · 山獺皮 · 海獺皮가 있으며 水獺皮는 宮中에 進獻되는 物品이었는데 歲幣로 300張 또는 400張이라는 많은 量의 水獺皮가 사용되었다.⁴⁸⁾

水獺皮가 사용된 遺物은 國立民俗博物館에 있는 頭釘갓옷을 들 수 있는데 갓옷의 수구와 깃 · 앞여밈 등의 가선을 5cm로 하여 水獺皮로 두르고 있다(圖10).



〈圖10〉 水獺皮 가선의 頭釘갓옷
(國立民俗博物館 所藏品)

7. 여우(狐)

여우가죽은 忠淸道 · 慶尙道 · 全羅道 · 黃海道 · 江原道 · 平安道 · 咸鏡道 朝鮮의 京畿道를 제외한 전 地域에서 생산되었다.⁴⁹⁾ 여우가죽의 종류에는 狐皮 · 赤狐皮 등이 있었다.

41) 『韓國誌』, pp.166~167 · 469.

42) 『林園經濟志』 卷3, 贍用志.

43) W.E. 그리피스, 上揭書, p.131.

44) 『度支定例』 · 『尙方定例』 天篇.

45) 『韓國誌』, pp.167 · 469.

46) 『雅言覺非』 卷2.

47) 『五洲衍文長箋散稿』 卷22, 獸皮禽毛辨證說.

48) 『萬機要覽』, 財用編.

49) 『世宗實錄地理志』 卷149-155.

여우가죽은 宮中에 進獻되는 品目이었다. 朝鮮時代에는 가죽을 양탄자처럼 이어 한장의 커다란 천으로 만들어 쓰는데 여우가죽도 이어 이불과 요에 사용되었다.⁵⁰⁾

8. 호랑이(虎)

피(皮)와 비(比) 소리는 서로 통하는 까닭으로 虎皮를 옛날에는 고비(皐比)라 칭하였다. 또한 호록비(虎鹿皮)라 하기도 하였다.⁵¹⁾ 朝鮮의 호랑이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韓國産 호랑이가죽이 야말로 特殊高價 品目으로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으며 그 가죽은 인도산과 벵골산의 가격을 능가하였다.⁵²⁾

上流社會에서는 虎皮로 內室을 가꾸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는 바닥이나 아기의 보료로 사용되었으며 호랑이털로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였고 이불과 요로도 사용하였다.⁵³⁾ 朝鮮時代 호랑이가죽은 服飾이나 衣服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호랑이가죽을 머리까지 연결시킨 상태로 넓게 펴서 깔개의 종류나 裝飾用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朝鮮時代에 호랑이가죽을 그린 民畫와 함께 虎皮를 깔고 앉은 초상화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위의 이유에 연유된 것이다.

朝鮮時代 호랑이가죽은 慶尙道·黃海道·江原道·平安道에서 생산되었다.⁵⁴⁾ 그 종류로 虎皮·禮單虎皮가 있었으며 進獻物品이었으며 外國에

중은 輸出商品이었다.

9. 표범(豹)

毛皮 중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표범가죽이며 朝鮮에서는 표범가죽을 日用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귀한 官吏階級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外國으로는 소량만이 수출되었다.⁵⁵⁾

표범가죽은 忠淸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江原道·平安道·咸鏡道에서 생산되었다.⁵⁶⁾ 江原道の 울릉도에 바다곰과 바다표범이 났다.⁵⁷⁾

그 종류로는 豹皮·進獻豹皮·禮單豹皮가 있었으며 宮中에 進獻品目이었는데 大殿에 月領으로 豹皮 44張이 進上되었다.⁵⁸⁾ 宮中 所用豹皮는 尙衣院 金銀色에서 관장하였다.⁵⁹⁾

10. 水豹

표범의 종류 중 水豹는 海狗 즉 물개·바다개를 말하며⁶⁰⁾ 朝鮮時代に 그 가죽이 사용되었다.

11. 고양이(猫)

고양이가죽은 하등의 가죽으로 朝鮮에서는 사냥감으로 삼지 않았다.⁶¹⁾

얼룩고양이(班猫)는 朝鮮에서 京畿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江原道에서 산출되었다.⁶²⁾ 그

50) W. E. 그리피스, 上揭書, p.155.

51) 『雅言覺非』卷1.

52) 『韓國誌』, pp.167·467.

53) W.E. 그리피스, 上揭書, pp.143·155·254·255·262.

54) 『世宗實錄地理志』卷150·152·153·154.

55) 『韓國誌』, pp.167·468.

56) 『世宗實錄地理志』卷149~155.

57) W.E. 그리피스, 上揭書, p.60.

58) 『萬機要覽』, 財用篇.

59) 『六典條例』卷10, 工典 尙衣院.

60) 『雅言覺非』卷3.

61) 『韓國誌』, pp.167~168.

62) 『世宗實錄地理志』卷150·151·152·153·158.

종류로 班猫·猫皮·唐猫皮가 있다.⁶³⁾

12. 토끼(兔)

우리나라에 흔하였던 動物의 종류로 토끼가죽은 全羅道와 江原道 土産으로 進獻된 品目이었다. 토끼 가죽이 사용된 遺物로는 甲冑의 가선에 사용된 경우와 같이 각종 防寒品目的 가선등을 裝飾을 겸하여 사용되었는데 <圖11>은 토끼털을 사용한 이염으로 미국 피버디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토끼털은 이염의 머리에 쓰는 모자의 가선 부분을 두르고 있다.



<圖11> 토끼털 가선의 이염
(유길준과 개화의 꿈 p.85)

13. 쥐(鼠)

朝鮮時代 3品 이하 9品에 이르는 暖帽인 耳掩에 사용된 皮物이다.⁶⁴⁾ 집쥐·큰쥐가 기록되었고 쥐가죽은 平安道·咸鏡道の 土産으로 청색쥐가죽도 함께 산출되었으며 進上된 品目이었으며⁶⁵⁾ 朝鮮時代 사용된 쥐가죽 종류로 鼠皮·唐鼠皮·山鼠皮·進獻鼠皮·各色鼠皮가 있다.⁶⁶⁾

朝鮮時代に 鼠皮는 갓옷의 材料로 사용되었으며⁶⁷⁾ 宮中 所用 鼠皮는 尙衣院 金銀色에서 관장하였다.⁶⁸⁾

14. 다람쥐(鼯)

狩獵上 중요한 動物 종류였으며 보통 다람쥐로서 朝鮮人들은 그 털로 겨울 신발을 만들었다.⁶⁹⁾ 다람쥐는 現代에도 山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動物이다.

다람쥐 가죽은 宮中の 産室排設用으로 사용되었다.⁷⁰⁾

15. 원숭이(狢)

원숭이류 중에서 韓國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다고양이에 속하는 *Inuus speciosus* Temm이 있다. 이 원숭이는 반도의 남부에 많으며 대개人家的 부근에 살고 있다고 한다.⁷¹⁾

63) W. E, 그리피스, 上揭書, p.155.

64) 『經國大典』卷3, 禮典 儀章.

65) 『韓國誌』, p.168.

66) 『世宗實錄地理志』卷154·155.

67) 『林園經濟志』

68) 『六典條例』卷10, 工典 尙衣院.

69) 『韓國誌』, p.169.

70) 梁在淵, 上揭書, p.194.

71) 上揭書, p.169.

16. 살괘이(狸)

韓國에서는 살괘이를 사냥하는데 그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살괘이의 폭신폭신한 가죽털은 滿洲軍의 軍帽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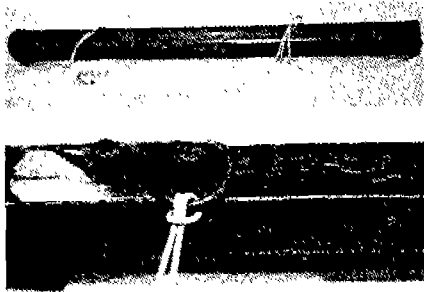
17. 어피(魚皮)

바다동물로 그 가죽이 사용되는 종류는 상어·고래·돌고래와 물개 등이 있다.⁷³⁾ 보통 魚皮라 함은 상어가죽을 말하는데 朝鮮時代에 많이 사용된 가죽이다.

현재 전하는 遺物 중 상어가죽이 사용된 品目은 장도의 칼집과 손잡이와 그 부속장식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화살을 넣는 진통을 비롯하여 軍士品目에 많이 사용된 가죽 종류이다. 상어가죽으로된 朝鮮時代 행낭 遺物이 있다.

日本에 보내었던 각종 皮物 중에 魚皮 100張이 기록되어 있다.⁷⁴⁾

魚皮의 종류로 魚皮·升魚皮·白魚皮·沙魚皮가 있다.



〈圖12〉 魚皮전통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

상어가죽이 사용된 遺物의 例로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전통으로 〈圖12〉에 게재하였다.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상어피전통은 遺物番號 1540號로 상어피가 전면에 싸여 있는 형태로 화살이 들어가도록 만든 팔각형의 긴 통이다. 漁皮는 그 무늬에 특징이 있다.

18. 기 타

위의 皮物 종류 이외에도 朝鮮時代 문헌에 다른 동물의 명칭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기타에서는 이를 모아 보았다.

이리가죽의 종류로는 狼皮·大狼皮가 있다.

斜皮의 종류에는 斜皮·黑斜皮·各色斜皮가 있다.

唐皮의 종류로는 唐皮·白唐皮·黑唐皮가 있다.

그 외에 皮·黑皮·六張牛皮·占察皮·獬皮·皮金 등이 있다. 皮金은 가죽에 金을 사용한 工藝品의 종류로 보여진다. 各色皮가 黃海道에서 皮絃이 慶尙道에서 났다.⁷⁵⁾

黃海道에서 나는 늑대의 꼬리털로 만드는 붓도 또한 淸生과 商人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한다.⁷⁶⁾

고슴도치가죽은 京畿道·慶尙道에서 산출되었다. 안장유물이 전한다(圖13).

너구리가죽은 忠淸道·慶尙道·全羅道·江原道에서 산출되었다.⁷⁷⁾

朝鮮時代에 全羅道에서는 상당한 量의 생가죽·뺨·빨·가공가죽 그리고 獸脂가 對日品目을 이루고 있었다 한다.⁷⁸⁾

72) 上揭書, p.469.

73) 上揭書,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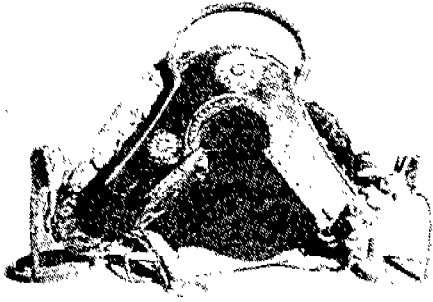
74) 『海槎日記』.

75) 『世宗實錄地理志』 卷150·152.

76) W.E. 그리피스, 上揭書, p.28.

77) 『世宗實錄地理志』 卷149·150·151·153.

78) W.E. 그리피스, 上揭書, p.47.



〈圖13〉 고슴도치가죽 안장
(文化財大觀 p.122)

IV. 工 匠

朝鮮時代의 工匠은 각 官阿가 주체가 되어 經營하는 作業場에 三番制로 出力하는 官工匠이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이 經營主體가 되어 있는 私工匠이다. 官工匠이란 官營手工業에 從事하는 工匠을 말하며 다시 서울에서 왕실과 官阿의 手工業의 需要를 위한 專業的生産을 하는 京工匠과 地方의 兵營과 州·郡·縣에 소속되어 있는 外工匠으로 區分된다.⁷⁹⁾

朝鮮時代 手工業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官營手工業으로서 工匠案에 등록된 官匠이었는데 서울의 여러 官署와 각 地方에 소속되어 무기·의류·도기·종이 등을 만들었다. 朝鮮時代의 가죽製造에 관련된 工匠으로 京工匠 尙衣院에 斜皮匠·生皮匠·熊皮匠·狍皮匠·靴皮入染匠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京工匠 工曹에 周皮匠·裹皮匠·靴匠·韃鞋匠이 소속되었으며 京工匠 濟用監에 熟皮匠이 京工匠 繕工監에 馬尾飾匠 등을 들 수 있다. 外工匠에는 皮匠이 있었는데 각 道에 각종 皮匠을 두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皮物을 製造하였는데 皮物이 日常用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工典의 山澤司에 皮匠·履皮匠·

報鞋匠이 소속되어 있었다.

朝鮮時代에는 각종의 工匠契가 있었는데 이는 匠人들이 製品의 生産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特權을 유지하고 尙부상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일종의 同業조합이었다.⁸⁰⁾ 朝鮮時代に 皮物에 관련된 契는 狗皮契·虎豹皮契·各塵契 등을 들 수 있다.⁸¹⁾

V. 結 論

우리나라는 東洋의 遊牧民族의 文化와 西域의 文化가 모여지는 地域이 되어 독자적인 皮物의 歷史가 이루어져 왔다. 韓國의 皮物은 수천년동안 사용되었고 朝鮮時代に 이르기까지 特産物로 전승되어 계통적으로 服飾에 사용되어 온 韓國의 傳統이다.

朝鮮時代 각종 皮物은 家畜과 狩獵에 의해 얻었는데 갓옷·防寒衣服·각종 신발류·褥과 같은 生活用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鹿皮裘와 바지와 신을 비롯하여 종류별로 製作된 遺物이 전하고 있다.

朝鮮時代 사용된 皮物의 종류로 가축에 소·말·돼지·개·양·염소·나귀·노새 등이 있었고, 야생동물로 호랑이·표범·담비·여우·살팽이·원숭이·너구리·사슴·곰·쥐·고양이·토끼·멧돼지·노루·수달·오소리·고라니·상어·물개·고슴도치·이리·물소·다람쥐 등이 있었다.

79) 『민속대백과사전』 2, p.837.

80) 上揭書, p.841.

81) 『萬機要覽』, 財用編.

ABSTRACT

A Study on Skins in Chosun Dynasty

Skins were manufactured in Korea since the early prehistoric period, and were manufactured and used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and Koryo through the Chosun era. These materials were developed in to skins through a tradition of thousand years. In Korea the Orient Culture of nomadic tribes

and Mesopotamia Culture of stock-farming come together and developed these original woolen fabrics and skins cultu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kins will be disscussed from the literature survey of the relevant references, researched remains and pictures.

During the Chosun period skins were frequently manufactured and used. Various skins were used as necessites of life such as clothing, shoes, bedclothes and so on.